



“정담·황박 장군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임진왜란 웅치전투 추도행사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내빈과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9조4585억원

신규 사업 포함 1228건

새만금 개발 정상화 등

미래산업 전환 '탄력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총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AI 등 미래산업 전환의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신규 사업은 307건, 2,445억원 규모로 초기 배정액은 적지만 총사업비는 약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국가예산 총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둔 성과다.

도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지휘부-정치관-실무' 삼각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기재부 핵심 라인과의 직접 소통, 세종·서울 상주팀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했으며, 한병도 국회 예정위원장, 이원택 도당위원장, 김운덕 국토부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지원이 더해져 역대 최대 규모 반영 성과를 기록했다.

예산 삭감으로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원), 인입철도(150억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원) 등 3대 SOC 핵심사업이 요구액 전액 반영되며 개발 정상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1,760억원)과 수목원(871억원) 예산도 확보돼 기반 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매입(85억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35억원) 등 신규 사업 포함으로 '진환경 새만금' 비전도 구체화됐다.

전북은 AI와 이차전지, 특장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사업(400억원), 전북 인공지능 신도시 혁신 허브센터(10억원)이 포함돼 국가 AI 연구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15억원), 전기상용차용 멀티 배터리 평가기반 사업(22억원)이, 특장산업에서는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16억원), 수소연소 엔진형 대형트럭 기술개발(40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국립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2억5,000만원)이 포함되며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2억원),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2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사업(3억원),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6억원)이 신규 포함됐다.

그간 광역권 지원에서 소외받았던 전북스타트업파크 조성(5억원)과 전북 디자인진흥원 건립(1억원)이 신규 담기면서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가 강화됐다.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억원) 예산도 확보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소·미반영 사업 증액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9월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지역구 의원을 통한 정책 질의와 정치권 설득도 병행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반영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오후 2시 개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헌법 47조 1항·국회법 4조에 따라 제429회 정기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이후 9~10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이어 15~18일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국회 일정 거부(보이콧)를 검토하고 있어 앞서 합의된 의사일정은 유동적이다. /뉴스

임진왜란 웅치전투 추도행사

전적지 가치 보존 다짐

전북자치도·완주군·진안군 공동 주관

웅치전투 역사적 의의·희생정신 알려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진안군이 공동 주관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추도행사가 지난달 29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주최 관계자와 완주군과 진안군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임진왜란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기리고, 웅치전투 전적지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다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추도행사는 웅치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웅치전투 당시의 치열했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추도어록, 추도시 낭독이 이어졌다.

이어 헌화와 묵념, 내빈과 유족이 함께하는 추도 퍼포먼스도 진행해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특히 정담 장군, 황박 장군 등 웅치전투에 참여했던 장군들의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12월 '임진왜란 웅치 전적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전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웅치전투의 정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 '웅치전투 선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투 희생자들의 나라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헌신을 기억하며, 더 많은 도민들이 그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국가 사적인 임진왜란 웅치전적지를 소중히 보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문가에게 듣는다

전북자치경위,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당위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지난달 29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전략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남원 유치를 위해 전략을 모색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일섭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박종승 전주대학교 교수, 송재영 우석대학교 교수, 윤상연 경성국립대학교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교수, 김시백 전북연구원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가 새 정부 국정 기조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과 함께,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의 지역소멸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열혈한 상생협력 차원에서 유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공모결과 발표 전까지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일섭 사무국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전북만의 과제인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